



August 2017

The Official Newsletter of the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Vol. 7 No. 2.

학회장: Don Soo Chon

(전돈수)

Dept. of Justice and
Public Safety
Auburn University
Montgomery, AL 36117
dcc8871@msn.com

부학회장: MoonSun Kim

(김문선)

Dept. of Criminal Justi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Brockport
Brockport, NY 14420
mkim@brockport.edu

총무: Seong min Park

(박성민)

Dept. of Criminal Justice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NV 89154
Seong-park@unlv.edu

회계: Sujung Cho

(조수정)

Dept. of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IL 62901
sujung.cho@siu.edu

뉴스레터 편집장:

Hyeyoung Lim (임혜영)
Dept. of Criminal Justice
University of Alabama
Birmingham, AL 35294
hyeyoung@uab.edu

Inside this Issue:

학회장 인사말	1
KOSCA bylaw 개정안	3
KOSCA 학술상	4
학회 정기모임공지	7
특별기획	11
학교소개	16
회원연구동정	20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
소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ditor's Summary / 학회장 인사말

Editor's Summary

- 공지 [1]: 2017 KOSCA Constitutional and bylaw 개정안 주요내용
- 공지 [2]: 2017 KOSCA 학술상
- 공지 [3]: 2017 학회 정기모임안내
- 특별기획 [1]: Interview with Dr. Matt R. Nobles
- 특별기획 [2]: 최경식교수 메사추세츠 주 국회증언 전문
- 특별기획 [3]: 송효종교수 "Criminal Opportunities in the Virtual Space"
- 학교소개: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학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KOSCA 회원 여러분들께,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우리 학회가 날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저는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서 올해 11월에 Philadelphia 에서 개최되는
ASC에서 있을 우리학회행사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
다. 우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행사에는 김진환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원장님과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님이 참석하셔서 자리
를 빛내주실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범수 한국경찰대학 학장님 및
대표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우리 학회와의 MOU 체결식도 가질 예정입니
다.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님은 우리 학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
면서 우리 학회회원들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학
회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해서 회원들의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학회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
구원과도 공동연구를 비롯한 학술교류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경찰대학은 앞으로 치안대학원을 설립하여 석사 및 박사과정을 개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대학이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학회와 경찰대학과
의 학술교류는 양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ASC에서 있을 우리 학회의 Guest speaker로서는 Harvard 대학의

(Continued on page 2)

학회장 인사말

저명한 범죄학자 Robert J. Sampson 교수님이 “New direction in life-course criminology”라는 제목으로 귀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Sampson 교수님은 범죄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많은 학문적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범죄학의 대가를 만난다는 기대감이 큼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학회는 이번에 3개의 패널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주제는 “Cybe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ternet fraud, cyber-attacks, and online drugs (chair: Dr. Daniel LeClair, Boston University, co-chair: Dr. Kyung-shick Choi,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Impact of cybercrime on social media and criminal justice response: Cyber-terrorism, cyberbullying, augmented reality game, and cyber policing (chair: Dr. Daniel LeClair, co-chair: Kyung-shick Choi),” Serial murder (chair: Dr. Tae Choo, University of North Georgia)” 등입니다. 이번 세 개의 세션을 조직해 주시고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기로 하신 모든 분들에게 미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학회 모임에서는 학생 회원들을 위한 학생분과위원회 (chair: 이지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o-chair: 한성일,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정기모임이 목요일 12:30 부터 1:50분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우리학회 제 2대 회장이셨던 California State University-Bakers Field 에 재직중이신 주희종 교수님께서 학생회원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 졸업 후 취업, 그리고 연구와 강의를 비롯한 교수생활 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 회원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도 주희종 교수님께서 선배로서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학생회원들은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교수회원 중에서 그 동안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서 우리 한국학자로서 명예를 높여 주신 분을 심사를 통해서 학술상을 드리고, 학생회원 중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쓰신 분을 선정해서 학생우수논문상을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학회 창립과정 또는 그 후에 학회봉사활동을 통해서 학회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신 분을 선정해서 특별공로상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학회 때 있을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의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ASC모임을 끝으로 저의 임기는 끝나고 SUNY Brockport에 재직중이신 김문선 교수님께서 제 뒤를 이어서 우리 학회의 신임회장으로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문선 교수님은 학식과 인품을 겸비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학회 때 간단하게 회장 취임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우리 학회가 준비한 여러 행사들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학회가 점점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혹시 학회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뿐만 아니라 학회임원 누구에게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미한인범죄학회 회장 전돈수 배상



공지사항 [1]: KOSCA CONSTITUTIONAL AND BYLAW 개정안 주요내용

KOSCA Constitutional and bylaw 개정안 주요내용

첫째, 학회업무를 수행할 회원수가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회장, 부회장 등의 학회의 모든 선출직, 임명직 종사자의 임기를 1년(이사진의 결의 및 회장의 지정에 의해 1년 연장가능) 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추가연장 없음).

둘째, 학회를 통한 각종 연구용역(research grant)을 받을 자격을 정회원에게만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대다수의 회원분들이 회비를 11월 ASC에서 납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회원자격을 직전년도 회비 납부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Constitution은 당해 년도 회비 납부자만 정회원자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넷째, 기존 Constitution에 따르면 3년 이상 정회원을 유지한 분만 평생회원이 될 수 있었으나 현실성이 부족하고, 3년이라는 기간으로 제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300달러의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한 분들은 모두 평생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단, 액수는 추후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존 Bylaw는 각종 입후보 자격을 전체 정회원 10퍼센트 이상의 추천 또는 임원진의 추천을 받는 자로 규정하였으나, 전체 정회원 1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의 당위성과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회원의 추천이 있는 정회원은 누구나 입후보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개정일정

규정에 따라 학회 총무 (박성민 교수)가 전체 정회원을 대상으로 8월 15일부터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반투표는 서베이몽키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중곤

공지사항 [2]: 2017 KOSCA 학술상 NOMINATION

2017 KOSCA 학술상 NOMINATION

1. 목적 및 개요

KOSCA 회원들의 학술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

KOSCA 교수회원 중에서 Criminology 및 Criminal Justice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성취하여 재미한인범죄학회의 명예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분을 심사과정을 거쳐 매년 1회 한 분에게 학술상을 수여함. 학술상을 받은 분은 KOSCA Bylaws에 따라 평생동안 “KOSCA Research Fellow” title을 유지함.

2. 자격

A. KOSCA의 정회원의 자격(현재 미국거주)이 있다고 인정되는 본 학회 교수회원 중에서 publication, funded research, 그리고 conference presentation 등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성취하여 재미한인범죄학자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신 분.

B. 2017년 7월 31일 (일) 까지의 연구활동을 심사대상으로 함.

3. Nomination 과정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수회원을 Award Committee 조역일 교수에게 이메일로 nomination 함 (cho@ucmo.edu). Self-nomination도 가능함. 해당하는 분의 이름, 소속, 연락처, 그리고 간단하게 nomination하는 이유를 제출. 올해에 nomination 받은 분이 학술상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 또는 그 이후에 다시 nomination을 받을 수 있음.

4. 심사과정

A. Nomination 받은 분을 대상으로 본인이 nomination을 accept할 것인지를 확인.

B. Nomination을 accept하신 분 중에서 제출서류를 받아 Award Committee 위원장과 위원장에게 임명을 받은 분을 포함한 총 3인의 심사위원에서 1분을 학술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학회장에게 추천함.

5. Nomination 유의사항

Nomination 받은 분의 privacy를 보장하기 위해서 nomination내용은 Award Committee 조역일 교수에게만 알리고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해서는 안됨. 같은 이유로 심사과정도 비공개로 진행이 됨.

6. 제출서류

A. Cover letter

B. 2017년 7월 31일 (일)까지의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편집된 CV

7. 제출기간: 2017년 8월 21일(월) – 9월 22일(금)

8. 향후 일정

A. 심사기간: 2017년 9월 25일(월) – 10월 27일(금)

B. 시상식: 2017 ASC 학회 기간 중 KOSCA 만찬 및 정기총회시 (11월 16일, 목, 7시)

공 지 사 항 [3]: 2017 KOSCA STUDENT PAPER AWARD NOMINATION

2017 KOSCA Student Paper Award Nomination Solicitation

1. 목적 및 개요

KOSCA 학생회원들의 학술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

KOSCA 학생회원 중에서 Criminology 및 Criminal Justice 분야에 우수한 paper를 집필하여 재미한인범죄학회의 명예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분을 심사과정을 거쳐 매년 1회 1-2 분에게 student paper award를 수여함.

2. 자격

A. KOSCA의 정회원의 자격이(현재 미국거주) 있다고 인정되는 본학회 학생회원 중에서 우수한 paper를 집필하여 재미한인범죄학자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신 분.

B. Paper가 최근 3년 이내에 집필한 것으로 한정함. Paper는 solo-author 또는 first author인 경우에만 인정함. 또한 paper가 publish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다만 학위 논문은 제외함.

3. Nomination 과정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회원을 Award Committee 조역일 교수에게 이메일로 nomination 함(cho@ucmo.edu). Self-nomination도 가능함. 해당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그리고 간단하게 nomination하는 이유를 제출. 올해에 nomination 받은 분이 학술상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 또는 그 이후에 다시 nomination을 받을 수 있음.

4. 심사과정

A. Nomination 받은 분을 대상으로 본인이 nomination을 accept를 할 것인지를 확인.

B. Nomination을 accept하신 분 중에서 해당논문 한 편을 제출 받아 Award Committee 위원장과 위원장에게 임명을 받은 분을 포함한 총 3인의 심사위원에서 한 분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학회장에게 추천함.

5. Nomination 유의사항

Nomination 받은 분의 privacy를 보장하기 위해서 nomination내용은 Award Committee 조역일 교수에게만 알리고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해서는 안됨. 같은 이유로 심사과정도 비공개로 진행이 됨.

6. 제출서류

A. Cover letter

B. 해당 논문 electronic copy

7. 제출기간: 2017년 8월 21일(월) - 9월 22일(금)

8. 향후 일정

A. 심사기간: 2017년 9월 25일(월) - 10월 27일(금)

B. 시상식: 2017 ASC 학회 기간 중 KOSCA 만찬 및 정기총회시 (11월 16일, 목, 7시)

공지사항 [4]: 2017 KOSCA 특별공로상 NOMINATION

2017 KOSCA 특별공로상 Nomination

1. 목적 및 개요

KOSCA 회원 중에서 그 동안의 학회활동 (service)을 통하여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을 심사과정을 거쳐서 매년 1회 한 분에게 수여함.

2. 자격

KOSCA의 정회원의 자격 (현재 미국거주)이 있다고 인정되는 본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 창립과정과 그 이후의 학회 활동을 통해서 학회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신 분.

3. Nomination 과정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을 Award Committee 위원장 (조역일 교수: 이메일 cho@ucmo.edu)에게로 nomination 함. Self-nomination도 가능함. 해당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그리고 간단하게 nomination하는 이유를 제출.

4. 심사과정

- A. Nomination 받은 분을 대상으로 본인이 nomination을 accept를 할 것인지를 확인.
- B. Nomination을 accept하신 분 중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Award Committee에서 특별공로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여 학회 회장에게 추천함.

5. 제출서류

- A. 본인이 학회발전에 공헌한 내용을 담은 cover letter

6. 제출기간: 2017년 8월 21일(월) - 9월 22일(금)

7. 향후 일정

- A. 심사기간: 2017년 9월 25일(월) - 10월 27일(금)
- B. 시상식: 2017 ASC 학회 기간 중 KOSCA 만찬 및 정기총회시 (11월 16일, 목, 7시)

학회 정기모임공지 : 2017 KOSCA Annual Meetings & Reception in Philadelphia, PA

2017 KOSCA ANNUAL MEETING & RECEPTION (Tentative Schedules)

73rd Annual Meeting of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November 15-18, 2017 / Philadelphia, PA

1. KOSCA ANNUAL MEETING

Date: November 17th, Friday 2:30 to 4:00pm

Location: (추후공지)

Guest Speaker: Dr. Robert Sampson (Harvard University)

2. KOSCA STUDENT DIVISION MEETING

Date: November 16th, Thursday 12:30 to 1:50pm

Location: Marriott, Logan - Courtyard Marriott 1st Floor

Guest Speaker: Dr. Heejong Joo (California State University)

3. KOSCA CYBERCRIME DIVISION MEETING

Date: November 18th, Saturday 10:00 to noon

4. KOSCA RECEPTION

Date: November 16th, Thursday 8:00 to 9:00pm

Location: Marriot, Liberty Ballroom Salon B, Headhouse Tower 3rd Floor



학회 정기모임공지 : KOSCA Annual Meetings & Reception at 2017 ASC in Philadelphia, PA

2017 KOSCA PROGRAM

73rd Annual Meeting of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November 15-18, 2017 / Philadelphia, PA

Panel Session I:

Cybe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ternet Fraud, Cyber-attacks, and Online Drugs

Panel chair: Daniel LeClair

Co-panel chair: Kyung-shick Choi

1. A Diagnosis of internet fraud trend: A macro level approach to predict future internet fraud phenomenon - *Kyung-shick Choi, Boston University; Hyeyoung Lim,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Sinchul Back,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2.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of cyber-attacks: A global perspective approach - *Sinchul Back,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3. Issues of contemporary online drug market: The impact of "Darknet" on drug use among college students - *Kevin Earl, University of New Haven*
4. Cyber-routine activities theory and cybercrime victimization: A meta-assessment approach - *Marlon Mike Toro-Alvarez, Colombian National Police*

Panel Session II:

Impact of Cybercrime on Social Media and Criminal Justice Response: Cyber-terrorism, Cyberbullying, Augmented Reality Game, and Cyber Policing

Panel chair: Daniel LeClair

Co-panel chair: Kyung-shick Choi

1. Spreading Propaganda in the Cyberspace: Comparing Uses of Cyber resources of Al Qaeda and ISIS - *Kyung-shick Choi, Boston University; Claire Seungeun Lee, Inha University; Robert Cadigan, Boston University*
2. A qualitative examination of nonconsensual pornography motivations through perception analysis - *Jin Ree, Lee, Michigan State University*

(Continued on page 9)

학회 정기모임공지 : KOSCA Annual Meetings & Reception at 2017 ASC in Philadelphia, PA

2017 KOSCA PROGRAM

73rd Annual Meeting of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November 15-18, 2017 / Philadelphia, PA

Panel Session II (cont'd):

3. Pokémon Gone Wild: The Emergence of Augmented Reality Games and the Perceived Risk of Crimes Against Its Users - *Hannare Lee, Indiana University*
4. Social Media Policing and A War with Rumors in China's Cyberspace: A Case Study of Weibo - *Claire Seungeun Lee, Inha University*

Panel Session III: Serial Murder

Panel chair: Tae Choo

1. Criminal death of child and adolescent with postmortem mutilation or decomposition
Hye Jung Kim, Kyung-moo Yang, Byung Ha Choi, Han-young Lee, Bong-woo Lee, Young-shik Choi, Minjung Kim, Medical Examiner's Office, National Forensic Service
2. Medical examiner's role in murder cases in South Korea
Young-shik Choi, National Forensic Service
3. Prosecutor involvement with forensic scientists and autopsies
Jeffrey Klingfuss, Mississippi College of Law

학회 정기모임공지 : KOSCA Student Division Announcement

KOSCA Student Division at 2017 ASC

KOSCA 학생분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분과위에서 학생회원분들에 2017 학생분과 정기모임에 관해 공지 드립니다.

작년 11월 뉴올리언즈에서 열린 첫 학생분과 모임에서는 Baylor University의 장성준 교수님을 모시고 범죄학 공부 및 박사과정 관련해서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장성준 교수님께서 연구 주제 선정방법, 연구자로서의 자세와 논문 출간 과정, 그리고 최근 범죄학의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The Korean Criminologist 7권 1호에 담긴 학생분과 모임에 관한 기사에서 자세한 질의 응답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OSCA 내 학생회원들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로 시작된 학생분과 모임은 KOSCA 학생회원 혹은 회원을 희망하시는 학생분들이면 누구든지 참여가능합니다. 작년 11월 첫 학생분과 모임을 시작으로 매해 ASC학회기간 내 정기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학생분과 모임을 필라델피아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학생분과 모임의 시간과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16일 (목) 오후 12:30-1:50 at Marriott, Logan – Courtyard Marriott 1st Floor.

올해에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Bakersfield의 주희종 교수님을 모시고 질의 응답의 시간 및 학생회원들간의 다과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희종 교수님은 전 KOSCA 회장으로 역임하셨고, 오랜 기간동안 범죄학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 비교 범죄학, 방법론 등을 연구하셨습니다. KOSCA에 대한 깊은 관심과 범죄학 연구 및 제자 양성에 오랜 시간동안 힘쓰셨기에 올해 교수님과의 시간이 현재 범죄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회원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교수님과의 질의 응답 시간 후 학생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계획하고 있으니, 학생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분과 모임의 알찬 시간을 구성하기 위해 학생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2분 정도의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분과 모임 및 학생분과를 통해 기대하는 생각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 링크: <https://www.surveymonkey.com/r/CXKDQ5D>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학생분과위원회로 문의해 주십시오

설문결과와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학생분과모임이 학생분들에게 폭넓은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필라델피아에서 뵙겠습니다.

이지혜 (yoojihye@usc.edu)

한성일 (sxh145430@utdallas.edu)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Matt R. Nobles

*KOSCA 뉴스레터에서는 Research, Teaching, Service 등에 있어서
 각 학교의 저명한 교수님들의 교육철학과 인생철학을 인터뷰를 통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KOSCA 회원으로써 소개해 드리고 싶은 교수님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 편집위원 이희욱 교수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욱 교수: heeuklee@weber.edu).

Interview with Dr. Matt R. Nobles**Dr. Matt R. Nobles 소개**

Ph.D. Criminology, Law & Society, University of Florida (2008)
 M.A. Criminology, Law & Society, University of Florida (2005)
 B.S. Criminology, University of Florida (2003)
 B.A. Psychology, University of Florida (2001)



Matt Nobles 교수님은 현재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Public Affair Department에서 Associate Professor로 재직 중이시며, UCF 이전에는 Washington State University와 Sam Houston State University에서 교수로 근무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다수의 책(책터)과 수십여 편의 학술논문을 탐저널에 출판하셨고 8번의 연구 grant를 학교와 주정부 및 연방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Dr. Nobles 교수님의 연구분야는 다양하며 주로 Violent and interpersonal crimes, stalking, social ecology, communities and crime, guns and gun policy, criminological theory, 그리고 quantitative methodology입니다.

인터뷰 관련 안내사항

지난 2017년 여름, 한성일 박사과정 학생이 Matt Nobles 교수님을 인터뷰 하였고, 질문양식과 내용은 이전 Newsletter와 마찬가지로 Robert Worley (2011) What makes them tick: Lessons on high productivity from leading 21 century academic sta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Education, Vol 22 (1), 130-149 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Continued on page 12)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Matt R. Nobles**Q.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the member of the KOSCA?**

우선 인터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OSCA회원들에게 학자로서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Public Affair Department에서 Associate Professor로 근무하고 있는 Matt Nobles 입니다. 저는 2008년 University of Florida의 Criminology, Law & Society program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UCF 이전에는 Washington State University와 Sam Houston State University에서 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저는 generalist로서 주로 범죄이론을 검증하는 연구, 다양한 분야의 Policy Evaluation, stalking과 같은 개인적 범죄피해, Spatial Analysis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연구 관심사는 매우 광범위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연구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 You described yourself as a generalist. In particular, what type of research have you done?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을 수행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immigration in crime, specific policy evaluation, 또는 social learning theory과 self-control theory 등을 기반으로 하는 범죄학 이론 검증 연구들을 수행하였으며, 방법론적 혹은 이론적 기반의 spatial analysis 관련 논문들 또한 출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제 동료는 “Effectiveness of residence restrictions in preventing sex offense recidivism”이란 주제로 resident restriction policy에 대해 평가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Generalist로서 다양한 연구 기회와 프로젝트에 열려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을 때 최선을 다해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합니다.

Q. How are you able to have a lot of publications?

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훌륭한 co-author와 collaborator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대학원 학생시절부터 알아온 오랜 친구로서 훌륭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으며, 그 외의 동료들은 프로젝트 혹은 다양한 학술적 모임을 통해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간단한 연구 이야기로 시작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훌륭한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좋은 학생들의 멘토가 될 수 있었던 훌륭한 기회들이 있었으며, 이는 대학원 시절부터 학생들과 협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다양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Q. Who would you say the most influenced you work?

학자로서의 경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제 멘토인 Dr. Alex Piquero라 할 수 있습니다. Dr. Piquero는 오늘날 아마도 범죄학 분야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영향력 있는 학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ntinued on page 13)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Matt R. Nobles

그의 연구자세와 범죄학 분야에 대한 지식, 논문 출판 과정에 대한 엄격함, 그리고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요소에 대한 지도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원생들에게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을 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멘토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영광스럽게 Dr. Ronald Akers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Dr. Akers는 훌륭한 연구란 무엇인지, 연구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좋은 예가 되곤 하였습니다. 항상 인자하면서도 학자로서 전문성을 잊지 않아 대학원생들에게 완벽한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그들의 co-author로서 다양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Q. Do you ever get the writer's block?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writer's block을 경험합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자면, writer's block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학자들과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협업의 경우 내 역할이 분명해 지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열정과 에너지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식만큼 좋은 해결책이 없을 것입니다. 제 경우 대부분의 writer's block은 자신을 너무 몰아 붙이거나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경우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때론 잠시 일들을 미루어 놓고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때 제 업무에 집중하기 훨씬 쉬웠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Q. How many different research projects do you tend to work on at one time?

저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업무를 한번에 처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구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단 몇 시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한가지 일에 매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자리에 앉아 일을 할 때는 한가지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최대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저는 화이트 보드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화해 언제까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 놓고 많은 project 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Q. Do you have a specific time of the day when you prefer to do research?

저는 연구를 위한 특정한 시간을 명확히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제 사무실과 office hour가 있지만 연구보다는 학생들과 미팅을 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와 시간입니다. 저는 이전부터 밤에 일하는 것을 선호했고 거의 모든 제 논문들은 이 시간에 작성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밤 시간에 효율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커피숍 등과 같은 장소에서는 PC를 이용해야 하는 작업과 간단한 email 작성 등을 하지만 논문을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업무의 양과 종류에 따라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지만 개인적으로 늦은 시간 집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Continued on page 14)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Matt R. Nobles**Q: How many pages do you tend to write per day?**

페이지와 관련하여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한 단락을 쓰기 위해 3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페이지 페이지가 가뿐하게 써지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만 저는 최대한 집중하고 논문 작성에 열정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실제로 내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내 역할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를 작성하기보다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Q: What constitutes a specific research year to you?

만약 올해가 지금 이 순간 시작한다면 저는 지난해 끝내지 못한 많은 연구와 업무들이 남아 있을 것 입니다. 어떤 논문들은 며칠의 시간만을 투자하면 마무리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을 것이며, 한창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논문 또한 있을 것입니다.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만 갖고 있거나 막 시작단계에 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저는 보편적으로 제 일년의 40% 정도를 지금까지 진행해온 연구와 프로젝트에 할애하며, 20% 정도는 새로운 연구 혹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외의 시간들은 유동적이지만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수업을 위해 시간을 할애 하고자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위의 언급된 일만으로도 상당히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단지 많은 양의 연구 혹은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요구에 응답 해야 하는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학생들마다 다른 종류의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연구를 진행하며, 많은 기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이 제가 새로운 분야를 계속해서 탐구할 수 있게 하며, 정체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Q: Do you set specific productivity goals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갖고 있는 최우선 목표는 제 일에 있어서 가장 양질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 입니다. 저에게 더 중요하거나 혹은 덜 중요한 논문은 없습니다. 그 연구에서 제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연구 논문들은 최대한 학술적으로 영향력 있는 저널에 출판하고자 합니다. 이론적으로 영향력 있고 많이 참고되는 저널에 논문을 제출할수록 그 분야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유명한 전문가들에게 유익한 리뷰들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논문을 보완하고 연구자 스스로도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위의 기준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약 75% 의 제 연구들이 범죄학 관련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들에 수록 되었습니다. Quantity에 대해서도 인위적인 기준은 갖고 있지 않지만, tenure 조건과 같이 제 위치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준들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경우 대부분 오히려 더 나은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Continued on page 15)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Matt R. Nobles

Q: Presumably, your success results in a high number of invitations to contribute to various works and solicited mentorship from graduate students, senior faculty, and junior faculty– how do you handle high demand?

우선 저는 최대한 제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 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 캠퍼스에 머무르면서 다양한 요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신속한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은 교내에 머무르는 경우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임교수 혹은 신임교수,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필요로 하는 제 능력이 다르며, 매우 다양한 분야에 대해 문의하곤 합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와 많은 업무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실제로 평소 긍정적인 태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래 전 제 멘토에게 배웠던 것처럼 제 position에 얽매이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제가 맡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때때로 수업 후 대학원 학생들과 간단한 음료를 즐기며 갖게 되는 프로젝트 혹은 연구에 대한 일반적 대화에서 이뤄지기도 하며, 스트레스 없이 많은 요구들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Q: What would you advise to junior faculty and graduate student?

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한 많은 조언들 중에서 어떤 시스템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게는 밤에 집중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많은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좋은 시스템입니다. 대학원생들은 빠르게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을 발견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수님들과 선배,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플랜을 설계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구축한 자신만의 시스템은 대학원 이후의 활동에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임 교수들의 경우, 만약 적합한 시스템을 찾은 후라면, 지금은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대학과 학과 내, 그리고 연구자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공한 신임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노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임 교수들에게 요구되는 인식들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많은 신임 교수들이 tenure를 위해 Federal Grant를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운 좋게 상당한 Fund와 함께 tenure process에 들어 갈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유리한 위치에서 tenure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Fund, 혹은 저술한 책이 없거나, 그리고 dissertation chair로서의 경험이 없는 것들은 치명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는 신임교수 업무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학과와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능력, 그리고 그 동안 자신의 업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해왔느냐가 더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성일 박사과정,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sxh145430@utdallas.edu)

학교소개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SIU)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최명현 박사과정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재미범죄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SIU), Department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CCJ)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최명현 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SIU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고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SIU는 일리노이주 남부 Carbondale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캠퍼스 타운인 Carbondale에서의 생활은 대도시 삶에 익숙한 경우 다소 무료함을 지울 수는 없지만 공부를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온화한 겨울과 덥지만 건조한 여름, 그리고 환상적인 봄, 가을의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으며, 대도시의 화려함을 대신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SIU 내에 위치한 Campus Lake와 Thompson Woods에 여름이면 수 많은 반딧불이 모이고 2곳의 주립 공원과 4개의 호수가 캠퍼스에서 10마일 이내에 자리잡고 있어 trekking, Kayaking과 같은 다양한 activity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새들의 지저귀음과 함께 일어나고 풀벌레 소리와 함께 잠드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곳이면서도 학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들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2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St. Louis, Memphis, Nashville, 그리고 Louisville과 같은 대도시가 위치해 있어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Continued on page 17)

학교소개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SIU)

SIU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일환으로 1869년에 설립되었으며, SIU Edwardsville, Springfield에 위치한 SIU School of Medicine과 함께 독립적인 서던일리노이 대학교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들 중 플래그십 캠퍼스입니다. SIU Carbondale은 3개의 전문대학원과 8개의 단과대학을 두고 있으며 2016년을 기준으로 4천명의 대학원 학생과 1만2천명의 학부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SIU는 오랜 역사를 가진 연구 중심의 종합대학교로서 카네기 교육 진흥 재단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은 SIU를 전미 고등교육기관 중 연구활동 측면에서 최상위 5%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The Princeton Review에서는 SIU를 "Best of the Midwest" 대학으로 수년간 선정한 바 있습니다.

SIU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DEPARTMENT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CARBONDALE

Department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CCJ)는 교정공무원들을 위한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The Center for the Study of Crime, Delinquency & Corrections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형사사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의 Omnibus Crime Control & Safe Streets Act (1968)가 발효되면서 학부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 비슷한 시기에 석사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학과의 명칭을 CCJ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박사 과정은 2012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SIU의 CCJ 박사과정 입학에 위한 요구사항은 여타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1회 가을학기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학부/석사, TOEFL, GRE의 성적표와 함께 지원서, 추천서 3부, personal statement, writing sample, CV가 필요합니다. 모든 full-time 신입생은 Fellowship 또는 Graduate Assistantship (GA)이 제공되며, tuition waiver와 연간 15,000불 이상의 stipends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GA로서의 기회와는 달리 국제학생들에게 주어지는 Teaching 기회는 보통 4학기에 GA로 일하는 교수의 수업에 2-3회 정도 guest lecturer로 참가한 후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Continued on page 18)

학교소개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SIU)

저희 과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인 세미나 수업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preliminary exam과 qualifying paper를 완료해야 합니다. Preliminary exam의 경우 보통 4학기에 응시가 가능하며 졸업을 위한 11개의 세미나 수업 중 5개의 핵심과목 (Foundations of Criminal Justice, Criminological Theory, Nature of Crime, Research Methods, and Introduction to Statistics)을 대상으로 출제가 됩니다. Qualifying paper는 preliminary exam을 통과한 학생에게 peer-reviewed journal에서 “Revise and Resubmit” 이상에 준하는 수준의 논문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졸업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요건이 모두 갖춰지게 되면 총 24 시간의 dissertation credits의 이수와 함께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박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SIU의 CCJ의 박사과정은 아직 출발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짧아 인지도면에서 아직 부족하지만 과에서 학생의 미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석사과정의 경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박사과정에 준하는 지원과 함께 학업성취를 제공하고 있어 미국에서 학위를 염두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 또한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Southern Illinois University의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박사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이 글을 통해 재미한인범죄학회 회원님들께서 SIU와 SIU CCJ graduate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재학중인 학교를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최명현 배상

E-mail: myunghyun.choi@siu.edu

CALL FOR PAPERS
Southern Criminal Justice Association
Astor Crowne Plaza
New Orleans
September 27-30, 2017



“The Criminal Justice Milieu in the South”

Sean Maddan, President
University of Tampa

Marvin D. Krohn, Program Chair
University of Florida

We will be going to New Orleans, Louisiana, in 2017. The Astor Crowne Plaza is located at the corner of Canal Street and Bourbon Street. The deadline for proposals is July 15, 2017. We will be using the electronic submission system again for all papers, panels, roundtables and posters. Please email questions to Dr. Marv Krohn, University of Florida (mkrohn@ufl.edu).

회원 인사 및 연구 동정

회원 인사 및 연구 동정
(Book Publications, Grants, & Other Scholarly Activities)인사이동

조수정 교수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email: sujung.cho@siu.edu)

임용 (가나다순)

김춘래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and Criminal Justice
Saint Joseph's University
(email: Ckim@sju.edu)

송효종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email: hyojong.song@utrgv.edu)

이진아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Criminal Justice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email: jina.lee@gvsu.edu)

이한나래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Justice
Marywood University
(email: hnrlee@marywood.edu)

(Continued on page 21)

회원 인사 및 연구 동정

승진

김빛나 교수 (Professor)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최경식교수 (Professor)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Research Grant

이중엽 교수 (Jonathan Lee, Ph.D.)
Assistant Professor of Criminal Justice
School of Public Affairs, Penn State Harrisburg

Lee, J. (2017). Pennsylvania Commission on Crime and Delinquency Justice Assistance Grant: Crime Mapping and Analytics for Dauphin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Jan 2017 through Dec 2017). Awarded \$81,000.

Invited Presentation

손지선 외 1명 (2017, 6월22일). 융합과학으로서의 범죄수사. 한국경찰과학수사학회 춘계학술대회.

Expert Testimony at the State House, Boston, MA

최경식 교수 (2017, 6월20일). An Act Addressing Cybercrime Through Enhanced Criminal Penalties, Civil Remedies, and Transparency.
(최경식교수의 국회증언 국문요약(본지 페이지 22-23) 및 영문전문 (본지 페이지 2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동정: 최경식교수 국회증언 국문요약

* 아래 국문요약은 극동대학교 성용은교수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Expert Testimony of Dr. Choi, Kyung-shick

주제: 사이버범죄의 대응과 사이버안전의 촉진 법안마련을 위한 매사추세츠 국회 증언

일시: 2017년 6월 20일

내용: 브리지워터주립대학교 형사사법학과 교수 및 보스턴대학교 사이버범죄수사 및 사이버시큐리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최경식 교수는 사이버범죄수사 및 사이버시큐리티 분야 전문가로서 매사추세츠주 정부의 요청으로 H.3618 법안의 입법을 위한 전문가 증언을 했다. 관련 법안은 사이버범죄자 처벌 강화, 사이버안전 입법의 조언을 위한 관련 전문가 집단의 구성, 생체인증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데이터 공개 이후 보고의무의 강화와 같은 다중의 개인정보 관련 보호 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교수는 사이버범죄 이후 법집행기관에 만성화된 과소보고(예, 범죄피해신고 누락)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그는 최근 매사추세츠주 경찰부서들이 랜섬웨어 (ransomware) 피해를 당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이버안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법집행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또한 끊임없는 경찰교육훈련과 사이버범죄 수사와 관련된 법집행기관의 협력이 사이버범죄 이슈 해결을 위한 주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교수는 “이 법안의 시행은 사이버범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집행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정부기관들과 시민들 사이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A State House Press Release 원문 참조>

FOR IMMEDIATE RELEASE

Cybersecurity experts and Rep. Cantwell push legislation to address cybercrime and promote cybersecurity

FOR MORE INFORMATION:

Rep. Jim Cantwell, 617-722-2396, james.cantwell@mahouse.gov

Boston, MA.....On Tuesday, cybersecurity experts joined Rep. Jim Cantwell to testify before the Joint Committee on Consumer Protection and Professional Licensure in support of measures to enhance cybersecurity in the Commonwealth.

The multi-part bill, **H.3618**, introduced by Cantwell (D-Marshfield), enhances punishments for

(Continued on page 23)

회원동정: Expert Testimony of Dr. Choi (최경식 교수)

cybercriminals, establishes an expert body to advise the legislature on cybersecurity, and adds multiple consumer protections like new privacy protections for biometric data and stronger corporate reporting requirements after a data breach.

Cybercrime represents a growing criminal threat to citizens, businesses, and government agencies. The average cost of an organizational data breach is \$7 million, with cybercrime being the second highest reported economic crime in the world. It is estimated that data breaches will cost an estimated \$2.1 trillion globally by 2019.

“In the midst of news stories about e-mail scandals and Russian cyberattacks, there was a 40% increase in data breaches in 2016 from 2015. Cybercrime affects thousands of Massachusetts families,” said Rep. Cantwell. “Crime is speeding off the streets and onto cyber highways. It’s about time we updated our laws and gave our law enforcement the tools they need to chase these folks down. We can’t rely on the federal government to do it.”

Testifying on a panel with Cantwell were Dr. Kyung-shick Choi, Associate Professor of Criminal Justice at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and Cybercrime Investigation and Cybersecurity program coordinator at Boston University, and Mr. Stephen Chow of Burns and Levinson LLP, which specializes in Business litig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During his testimony, Choi discussed the chronic underreporting to law enforcement following cybercrimes. He also highlighted a number of Massachusetts police departments who’ve been successfully attacked with ransomware. In ransomware attacks, cybercriminals encrypt and then hold a victim’s data hostage until the victim pays a ransom, often in bitcoin. Choi argued that “Cybersecurity is not just a “new phenomenon”; it is the future of law enforcement. He emphasized that constant police training and collaboration with all levels of law enforcement in cybercrime investigation is key to combatting cybercrime issues. By enforcing such measures into practice, Choi argues that this bill can “strengthen law enforcement agencies’ capability of handling cybercrime issues, thereby bridging the trust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its citizens.”

Choi noted that Massachusetts led the nation in cybersecurity in 2007 by requiring companies to encrypt protected consumer data and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programs. The growth in cybercrime over the last decade with “little Congressional action to assure a numbed citizenry “including businesses facing conflicting demands, “calls for new and passionate leadership by the Commonwealth.”

특별기획[2]: 최경식교수 국회증언 전문

Statement of

Kyung-shick Choi, Ph.D.

Cybercriminologist & Cybercrime Analyst

Before

Joint Committee on Consumer Protection and Professional Licensure State House

Hearing on

“An Act Addressing Cybercrime Through Enhanced Criminal Penalties, Civil Remedies, and Transparency”

June 20, 2017

Introduction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testify on the current state of efforts by the Massachusetts government to minimize the issues of cybercrime facing the Commonwealth.

My name is Kyung-shick Choi. I am both a Professor in the Criminal Justice Department at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and the Cybercrime Investigation and Cybersecurity (CIC) Program Coordinator at Boston University. I have been studying and teaching cybercrime and cybersecurity related courses for over 10 years.

As the cybercrime program coordinator at Boston University, I oversee the graduate certificate program in *Cybercrime Investigation and Cybersecurity (CIC)* and teach an average of 80 to 100 law enforcement officers each semester. Since 2009, I have been facilitating the *UN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as both an instructor and a cybercrime expert. I have also provided cybercrime training to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through global cybercrime conferences and local community events as an invited speaker.

My research focuses on the intersection of human behavior and technology—and how criminal justice can respond effectively to the challenges of cybercrime.

Upon thorough review, I am here to support the proposed bill HD3618 as a cybercrime expert.

I see the proposed bill as being divided into three main goals and purposes.

SECTION 2

First, the bill clarifies the liability of damages from security breaches, reflecting the various circumstances in **Section 2**. In fact, cybercrime related legal statutes are still ambiguous. This is becaus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as not yet caught up with the rapidly evolving dynamics of current technology and its related issues. Given the importance of citizen and consumer trust in both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data breaches can be catastrophic for businesses and citizens' safety. Therefore, specific guidelines for liability and civil remedies should be provided by the state. In this regard, I believe that the proposed bill meets these needs for the state of Massachusetts.

(Continued on page 25)

회원동정: Expert Testimony of Dr. Choi (최경식 교수)

SECTION 4, 5, 6, 7, 8, 9, and 10

Secondly, with the assistance of section 4 (which clarifies specific cybersecurity and cybercrime related terminologies), the bill emphasizes the sanctions and regulations against cybercrimes in **sections 5 (Regulations), 6 (Security Freeze), 7 (Criminal penalties for defraud-related matters), 8 (Extension of dates in criminal penalties), 9 (criminal penalties on cyber breaches), and 10 (duration of imprisonment based on DDOS and potentially Ransomware attack)**. As a society, our reactions and responses to cybercrime incidents are less intense when compared to conventional street crimes. Mass media tend to publicize cybercrimes less frequently unless the particular instances engender substantial harm and pose significant risks to society. Thus, cybercrimes tend to embody low profiles within society and social thought – that is, the public may not label cybercrime activities as “crime”. This is further illustrated by the fact that cybercrime cases usually go through civil, and not criminal courts. Although public and private sectors desire investigations into cyber-attacks, they usually avoid contact with the police department. One possible reason could be that the public does not realize the seriousness of cybercrime issues. In this regard, the proposed bill clearly attempts to change the public’s perception of cybercrime by increasing the level of sanction placed on data breaches and unauthorized access, as well as adding a new criminal offense for denial of service-type attacks. This bill is a much needed initial step in reframing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as it takes the lead on changing the paradigm, which is crucial for minimizing potential cyber threats.

SECTION 3

Thirdly, the bill aims to build a special commission on cybersecurity to assess the various cybersecurity threats and prevent potential cyberattacks with risk-management strategies and response plans. This is highlighted in **Section 3**. I would like to discuss this third purpose in more detail because I personally believe that this is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of the bill.

If you are a victim of a violent crime, you will immediately call 911. Let’s say you are a victim of ID theft: Who would you call? Would you know where to go for assistance? Research has shown that most of our citizens do not contact government agencies. That is, while identity theft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 in 2016 alone, around 15.4 million individuals fell victim to this cybercrime — people are still puzzled as to who they *should* and who they *could* report these incidents to. This reflects the findings that, although many citizens become victims of ID theft, most citizens do not rely on law enforcement or government agencies because the majority of citizens believe that there is nothing that the government can do to assist them in their victimization. I wish that I were engaging in hyperbole; I wish that my words were exaggerations. Sadly, this is the current reality of the situation.¹ In one of my recent studies, I found that ransomware attacks occurred in 6 different states (Alabama, Illinois, Massachusetts, Maine, New Hampshire, and Tennessee), whereby 11 local police departments and 2 sheriff departments were affected.² Eighty-five percent (85%) (11 out of 13 cases) of police departments paid the ransom demanded via the Bitcoin payment system. Bitcoin is a revolutionary technology that allows for a new way to send payments over the Internet. It is the first ever digital currency in the world. With Bitcoin, you can send any amount of money to anyone and anywhere in the world. The unique thing about Bitcoin is that the transaction is almost impossible to track, and the process is as easy as sending an email. All the ransomware attacks examined in the study came from spear-phishing emails containing hyperlinks and attachments, which infected data encryption.³ Unfortunately, we had 3 cases in Massachusetts, and all three police departments paid ransoms to these cybercriminals. Ransomware attacks are continually on the rise, and will keep gaining momentum if ransoms are paid.

(Continued on page 26)

회원동정: Expert Testimony of Dr. Choi (최경식 교수)

Another example of such an attack is the recently publicized WannaCry crisis. The WannaCry crisis is the latest ransomware that infected Windows computer systems globally affecting hospitals, universities, government agencies, businesses, and individuals. Starting May 12, 2017, WannaCry infected over 300,000 computers in 150 countries within 72 hours.⁴ The identities of the attackers are still unknown.

Furthermore, Ransom Denial of Service attacks (RDos) are also rising in popularity. These attacks, combining the concept of ransomware attacks and distributed denial-of-service attacks (DDos), threaten to conduct a DDos attack against an organization if they do not pay a ransom. This type of cyberattack denies access to the network and can cost organizations millions of dollars in some cases. Cybercriminals' techniques for targeting potential victims have been constantly evolving. According to the Kaspersky Lab, we see over 323,000 new pieces of malware every day and approximately, 37,000 websites are hacked daily.⁵

We are currently faced with a very difficult situation. How are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going to react to ransomware, DDOS attacks, and other cyber-attacks in the future? Do we have a structured government policy and/or organizational procedures in place to safeguard victims from such attacks? The "special commission" (listed in line 21) may be the perfect strategy articulator to prepare structured policy and procedures of cyber-crisis scenarios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is bill emphasizes the role of the special commission in promoting the prevention of cybercrime through a refined collaboration among local, state, and federal law enforcement across national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s. This is a crucial element for protecting citizens from cybercrime threats.

Cybersecurity is not just a "new thing"; it is the future of law enforcement. However, we have a very small number of units that are capable of operating cyber investigation. Almost every crime has a technological aspect (i.e., an email, a Facebook post, data from smart phone, google maps information, etc.). Additionally, on the darknet, the online drug market has been growing and expanding their drug-trafficking and distributions. Therefore, constant police training and collaboration with all levels of law enforcement in cybercrime investigation is key to combat cybercrime issues.⁶

Constant assessment of cybersecurity threats, detailed preventive risk-management planning, and cybersecurity breach response plans with response notification requirements must be accompanied and coordinated by the state. This is another essential need that the bill clearly identifies.

My recent study on cyber-terrorism indicates that cyberterrorism facilitated by social networking services (such as Facebook, Twitter, and YouTube) or encryption technology can indirectly lead to physical terrorism incidents as seen in many European countries. I strongly believe that this bill can serve to minimize the aforementioned potential risks. Furthermore, I also believe that this bill can strengthen law enforcement agencies' capability of handling cybercrime issues, thereby bridging the trust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its citizens.⁷

The greatest way of minimizing cybercrime threats within the state and at the local level would be through active community engagement in raising awareness of potential cybercrime activity on the Internet. Local and state law enforcement should inform their citizens to be alert of suspicious online activity and encourage them to report such behavior to a dedicated unit. Ideally, government and state agencies should train a community network on how to recognize potential cybercriminals and to report suspicious activiti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⁸

(Continued on page 27)

회원동정: Expert Testimony of Dr. Choi (최경식 교수)

Educating the general public can be an effective strategy in minimizing the potential risks of cybercrime. Another aspect of public education that is of paramount importance is providing general knowledge of cybersecurity to the masses. For instance, informing the public on the importance of updating security patches, regularly doing data back-ups, and securing home wireless networks can potentially minimize the number of people affected by cybercrime victimization.⁹

This bill broadly emphasizes the need for effective programs and practices as a recommendation. I hope to see this bill in motion and actively facilitating the innovative and effective programs that I addressed earlier. It is my utmost hope that the bill conveys the positive outcomes of minimizing potential cyber threats in both our society and the global community. This concludes my testimony to support this bill. Thank you.

Notes

- ¹ Kyung-shick Choi, H. Lim, and S. Back, "Macro-Level Social Opportunity Factors and Cyber Threats: Cybercrime and Its Challenges," Social Forces, For Review 2017.
- ² Kyung-shick Choi, T.M. Scott, and Daniel P. LeClair, "Ransomware against Police: Diagnosis of Risk Factors via Application of Cyber-Routine Activities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Science & Pathology 4, no. 7 (July 23, 2016).
- ³ Choi, Scott, and LeClair, "Ransomware against."
- ⁴ 1. Bill Chappell to NPR newsgroup, "WannaCry Ransomware: What We Know Monday," May 15, 2017, accessed June 7, 2017, <http://www.npr.org/sections/thetwo-way/2017/05/15/528451534/wannacry-ransomware-what-we-know-monday>.
- ⁵ Sarah Kitsos, "Kaspersky Lab Number of the Year 2016: 323,000 Pieces of Malware Detected Daily," news release, December 6, 2016, accessed June 12, 2017, http://www.kasperskyforbusiness.com/about-us/press-center/pressreleases/2016/Kaspersky_Lab_Number_of_the_Year_2016_323000_Pieces_of_Malware_Detected_Daily.
- ⁶ Kyung-shick Choi, *Cybercriminology and Digital Investigation* (El Paso, TX: LFB Scholarly Publishing, 2015).
- ⁷ Kyung-shick Choi, K. Lee, and R. Cardigan, "Spreading Propaganda in Cyberspace: Comparing Cyber-Resource Usage of Al Qaeda and ISIS,"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Under Review 2017.
- ⁸ Choi, *Cybercriminology and Digital*.
- ⁹ Choi, *Cybercriminology and Digital*.

Bibliography

Chappell, Bill. Bill Chappell to NPR newsgroup, "WannaCry Ransomware: What We Know Monday," May 15, 2017. Accessed June 7, 2017. <http://www.npr.org/sections/thetwo-way/2017/05/15/528451534/wannacry-ransomware-what-we-know-monday>.

Choi, Kyung-shick. *Cybercriminology and Digital Investigation*. El Paso, TX: LFB Scholarly Publishing, 2015.

(Continued on page 28)

회원동정: Expert Testimony of Dr. Choi (최경식 교수)

Choi, Kyung-shick, Kevin J. Earl, Arang Park, and Jo-Ann Della Giustina. "Use of Synthetic Cathinones: Legal Issues and Availability of Darknet." *VFAC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Review* Sept/Oct, no. 7 (2014): 19-32.

Choi, Kyung-shick, C. Lee, and R. Cardigan. "Spreading Propaganda in Cyberspace: Comparing Cyber-Resource Usage of Al Qaeda and ISIS."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Under Review 2017.

Choi, Kyung-shick, H. Lim, and S. Back. "Macro-Level Social Opportunity Factors and Cyber Threats: Cybercrime and Its Challenges." *Social Forces*, For Review 2017.

Choi, Kyung-shick, T.M. Scott, and Daniel P. LeClair. "Ransomware against Police: Diagnosis of Risk Factors via Application of Cyber-Routine Activities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Science & Pathology* 4, no. 7 (July 23, 2016): 253-258.

Kitsos, Sarah. "Kaspersky Lab Number of the Year 2016: 323,000 Pieces of Malware Detected Daily." News release. December 6, 2016. Accessed June 12, 2017. http://www.kasperskyforbusiness.com/about-us/press-center/press-releases/2016/Kaspersky_Lab_Number_of_the_Year_2016_323000_Pieces_of_Malware_Detected_Daily.

특별기획[3]: Criminal Opportunities in the Virtual Space**Criminal Opportunities in the Virtual Space**

송효종 교수,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최근 여러 유형의 사이버 범죄와 그 피해 사례들이 자주 보고되면서, 사이버에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학술적 정의와 분류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컴퓨터/네트워크를 직접 타겟으로 하거나, 혹은 이들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불법적 행위를 사이버 범죄로 정의한다면, 사이버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피해 역시 이미 전통적인 재산 범죄의 규모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Tcherni et al., 2016).

잘 알려졌듯이, 전통적 범죄 증가의 배경에 대해 Cohen and Felson (1979)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집 외부 활동의 증가에 주목했습니다. 즉, 개인의 집 밖에서 활동하는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감시자가 부재한 빈집이 범죄의 매력적인 목표물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시 수준에서의 범죄율 증가가 이러한 일상생활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최근 전통적 범죄의 감소 추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예방하는 감시 및 증거 수집 수단들 (e.g., 휴대폰 카메라 및 녹음기, CCTV 등) 이보다 다양해지고 성능이 강화되었으며, 나아가 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해졌고, 또 범죄의 주요 타겟이 되는 현금의 소지와 사용이 다양한 결제 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은 전통적 범죄의 기회 요소들이 줄어들음으로써 범죄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가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범죄 감소 추세가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회이론적 접근은 더욱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Farrell et al., 2010; Tseloni et al., 2010).

기회이론적 접근은 사이버 범죄의 증가 추세도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으며, 여러 업무 및 서비스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영/통합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컴퓨터/인터넷이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다 많은 범죄 기회가 가상공간에서, 혹은 가상공간을 매개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개인 정보가 컴퓨터나 가상공간 상에 저장되고, 보다 많은 금융 및 상거래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잠재적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사이버 공간은 매력적인 범죄 기회들로 가득한 곳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인 통제의 효율성이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는 곧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높은 범죄 기회로 인식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아직까지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며, ICT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범죄 수법도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인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가능성은 전통적 범죄들의 경우와 비교해 아직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이버 범죄 관련 수사 기법과 법률 제정 등에서

(Continued on page 30)

기획기사[1]: Criminal Opportunities in the Virtual Space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를 따라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한 가상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로컬 레벨에서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국제적 단위의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제 수단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필요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범죄 중 하나인 랜섬웨어(ransomware)의 확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랜섬웨어인 워너크라이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관련 피해들이 보고 되면서 랜섬웨어의 위험성과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랜섬웨어는 악성코드를 통해 개인 혹은 공용 컴퓨터에 침투하여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암호화 하여 사용자가 파일에 액세스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암호해제의 댓가로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신종 말웨어입니다. 기존의 말웨어들은 대부분 컴퓨팅 시스템 파괴/성능 저하, 개인정보 유출, 혹은 거짓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으로 이루어 졌지만, 랜섬웨어는 컴퓨터/데이터를 인질로 삼아 직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과거의 말웨어들과 비교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대담한 방식으로 진화된 사이버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가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된 것 역시 앞서 언급했던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과거보다 더 많이 컴퓨터/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기반합니다.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인터넷에 의존하여 사적/공적 업무를 처리하며, 더 많이 중요한 정보들을 컴퓨터에 저장하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의한 컴퓨터 원천봉쇄라는 상황은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이는 피해자들이 데이터 복구를 위해 높은 지불의사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잠재적 범죄자는 랜섬웨어를 통해 보다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범죄 수익에 이용된다는 점 또한 랜섬웨어의 확산에서 주목해야 할 기호 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온라인을 통해 사용자 간 가치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전자 화폐입니다. 거래에 있어서 국가/은행간의 연계 없이 직접 교환이 가능하고, 현금화를 위한 거래자 ID의 신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거래자의 신분 특정 및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비트코인의 특징—제 3의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는 개인간의 익명적 거래는 랜섬웨어 범죄자들이 금융당국 및 사법체계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보다 수월하게 불법적 금전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징들은 랜섬웨어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전통적 범죄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서 발생되기보다, 많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 원격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로컬 레벨에서의 대책보다, 국가 레벨, 나아가 국제적 레벨에서의 수사와 처벌, 감시에 관한 제도 및 법률, 정책 등에 대해 폭넓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저소득, 저학력, 고령층과 같이 인터넷 지식과 정보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사이버 범죄 예방법의 홍보와 교육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랜섬웨어의 경우, 클라우드 드라이브의 사용, 정기적 데이터 백업, OS 업데이트, 안티 바이러스 설치 등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Continued on page 31)

기획기사[1]: Criminal Opportunities in the Virtual Space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보안을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active-x 및 exe 파일 설치를 줄여나가고, 신속하게 웹표준 (HTML5) 에 기반한 보안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상당수의 해킹 툴들이 이메일이나 웹에 첨부된 파일을 통해 전파되는데 온라인 정보 및 사이버 범죄수법 등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보안 파일로 간주될 수 있는 파일을 경계심없이 클릭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취약 계층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는지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학회의 최경식 교수님께서 메사추세츠주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안 (HD.3618) 의 입법을 위해 주 의회에서 발표하신 내용 역시 이러한 랜섬웨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소식지내 최경식 교수 기사페이지 참고). 이 법안은 데이터 침해 및 파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정의와 이에 기반한 처벌 및 보상의 기준이 규정되고, 다양한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 평가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관련 전문가 집단 구성을 명시합니다.

최경식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사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지속적 인 경찰교육훈련과 사이버 범죄 수사와 관련된 local, state, federal 레벨에서의 법집행 기관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ICT 기술이 가져오게 된 우리의 일상생활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경식 교수님의 지적처럼, 사이버 범죄의 빠른 진화 속도에 맞춰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죄학, 법학,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레벨의 입법 및 수사기관 간의 광범위한 협력이 더욱 필요하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책을 홍보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에 대해 범죄학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앞으로 더 많이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References

-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Farrell, G., Tilley, N., Tseloni, A., & Mailley, J. (2010). Explaining and sustaining the crime drop: Clarifying the role of opportunity-related theories.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Safety*, 12, 24-41.
- Tcherni, M., Davies, A., Lopes, G., & Lizotte, A. (2016). The dark figure of online property crime: Is cyberspace hiding a crime wave?. *Justice Quarterly*, 33, 890-911.
- Tseloni, A., Mailley, J., Farrell, G., & Tilley, N. (2010). Exploring the international decline in crime rates.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7, 375-394.

공지사항 [5]: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및 홈페이지 관련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1) 입회원서 작성 및 제출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과 미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 연구에 관심 있는 모든 범죄학자는 KOSCA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입회원서([양식다운로드](#)-클릭)를 작성하셔서 Membership Committee Chair (송주영 교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회원께서는 신상이 변경된 경우에만 (영전 및 교수직 임용 등) 회원신청서를 재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입회원서를 보내실 때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차원에서 입회원서와 C.V.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Dr. Juyoung Song, E-mail: jxs6190@psu.edu
Penn State University at Schuylkill
Admin Administration Bldg.
Schuylkill Haven, PA 17972

2) 학회비 (연회비) 납부 (Payable to Sujung Cho)

보내실 곳: Dr. Sujung Cho, E-mail: sujung.cho@siu.edu
Department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1263 Lincoln Dr., Carbondale, IL 62901

연 회 비: 평생회원 (\$300), 교수/연구원 (\$20), 학생 (\$10)



공지사항 [6]: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및 홈페이지 관련

학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이용 안내

재미한인범죄학회 Membership Committee

멤버쉽위원회에서는 학회회원관리 뿐 아니라 학회홍보및 회원들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회 홈페이지와 Facebook 계정을 통해 학회 공지사항 및 회원들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학술정보의 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본 네트워크를 통하여 많은 연구교류와 공동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자의 연구 분야와 연구업적 등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SNS가 회원분들의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Facebook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330263550687261/>

Facebook 홈페이지에서 KOSCA 혹은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올해11월 ASC 학회기간동안, 학회홍보부스를 통해 회원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신입회원뿐 아니라 인사이동이나 연락처의 변경이 있으신 회원분들께서도 부스에 오셔서 회원정보를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쉽위원장 송주영

멤버쉽위원 백신철



공지사항 [7]: Newsletter 회원 글 모집 안내

뉴스레터 편집위원회에서는 'The Korean Criminologist' 을 위해 회원님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글은 회원 상호간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형식 및 내용

특정한 형식 혹은 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편하게 작성 (예: 수필형식, 사진 첨부 가능)

- 최근 본인의 근황 (수기), 학교 및 학과 소개, KOSCA 발전을 위한 제언
- 최근 연구결과물의 소개, 교수법 소개, 직장 구하는 방법 및 인터뷰 요령 등

2. 원고 접수 기간 및 보내실 곳

- 원고 접수 기간 : 상시
- 보내실 곳: 뉴스레터 편집위원장 임혜영 교수 (E-mail: hyeyoung@uab.edu)

3. 회원 인사 및 연구 동정 소식

- 영전, 승진 등의 인사이동을 하시게 되거나, 교내 및 외부 grant 기회, 각종 시상, 책출판을 하신 회원님께서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회원 인사 동정'을 통해 함께 축하 드립니다.

형식: (1) Grant - 연구기간, PI 또는 Co-PI 유무, Grant 지원 Institution, Title, Funding Amount
 (2) 시상 또는 Nomination 등 - 일자, 내용, Agency
 (3) 저자, 책제목, 출판일, 출판사 (APA Style)
 (4) 초청강연-발표자, 제목, 발표일자, 발표장소

참조: 회원 영전과 인사이동에 관한 소식은 Membership Committee Chair, 송주영 교수 (Email: jxs6190@psu.edu)에게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회원님의 책 홍보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간략한 책 소개와 표지사진을 첨부하여 뉴스레터 편집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The Korean Criminologist

Official Newsletter of the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Vol. 7, No. 2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870 Broadway Street

Lowell, MA 01854

ISSN 2169-9924 (Print)

ISSN 2169-9040 (Online)

President: Don Soo Chon (전돈수)

E-mail: dchon@aum.edu

Chief Editor: Hyeyoung Lim (임혜영)

E-mail: hyeyoung@uab.edu

Managing Editor: Youngki Woo (우영기: youngki.woo@wsu.edu)

Editorial Team: Heeuk Dennis Lee (이희욱: heeuklee@weber.edu)

Hyojong Song (송효종: hyojong.song@utrgv.edu)

Jihye Y Lee (이지혜: yoojihye@usc.edu)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